

# FIRST STEPS news

SPRING 2011

## 북한 식량 배급 극심히 줄어... 식량 긴급 호소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퍼스트 스텝스 팀과 원산 우유 제조공장 관리자들

### 사랑하는 퍼스트 스텝스의 친구들과 후원자 여러분!

데보라 하든과 그의 딸 매들린, 켈리 시헌과 커티스 코이커, 그리고 저를 포함한 5명의 일행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북한 친구들은 놀라운 환대를 해주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주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시편 102: 17), “내가 업을 것이요”(이사야 46:4) 라는 말씀을 늘 여러분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행은 방문 기간 동안 (2월 22일~3월 1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스물한 곳의 현장을 다니면서 콩 재고량, 콩우유 생산량, 기계 정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상태와 식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에는, 퍼스트 스텝스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 호소를 하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과 비어있는 식량창고가, 더 이상 최악일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도움과 보살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퍼스트 스텝스 수잔 리치 대표



콩우유를 마시며 웃는 어린이들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겨울준비를 한 원산 고아원 어린이들

First Steps is a Christian humanitarian organization reaching out to children in DPR Korea.

First Steps is based at 3260 West 5th Ave. Vancouver, B.C. V6K 1V4 Canada. BN: 87822 7511 RR0001. Gifts are acknowledged with an official receipt for income tax purposes.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www.firststepscanada.org](http://www.firststepscanada.org) or call us at 604-732-0195.

# 매들린의 일기

## 2월 22일 (화요일)

북한은 내가 가 본 그 어떤 곳과도 달랐다. “여행은 어땠니?”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는 특별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들판의 노동자, 길거리에 별로 없는 차량들, 그리고 6-70년대의 장식을 한 호텔까지, 그 곳은 전혀 다른 시대에 있는 것 같았다.

## 2월 23일 (수요일)

남포에 있는 콩우유 공장, 고아들을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방문했다. 손발이 뾰뾰 얼 정도로 실내는 추웠지만 털옷을 입은 어린이들은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등글게 모여 따뜻한 콩우유 한 잔을 급식 받는 순간은 그들에게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이었다.

## 2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매일 약 1,500 여명의 어린이들을 먹이는 형제산에 있는 콩우유 공장에서 3월 말이면 콩이 바닥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 1만 3천명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소에서는 스프링클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두 엄마가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 한 아기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였다.

## 2월 25일 (금요일)

콩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나눠주는 남포에 있는 한 유치원을 찾았다. 그 곳의 한 관리인은 퍼스트 스텝스의 도움을 받아 규모를 더 넓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우선적



매들린과 원산 고아원 어린이들

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은,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 사는 361명의 어린이들과 석탄이 부족한 4개의 고아원이다. 나는 또한 네살배기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 일곱살 된 여자아이를 안아보았다. 그 아이는 평균 몸무게보다 6킬로그램이나 가벼웠고, 얼굴에 쉽사리 낫지 않는 상처들이 많아 한눈에도 건강하지 않게 보였다. 그 아이는 사랑스러웠지만 행복을 표현하기에는 아파 보였다.

## 2월 26일 (토요일)

우리가 목도리를 가져다 주자 원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포즈를 취했고, 찍은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다. 자신

들의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이들이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월 28일 (일요일)

원산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제설 도구나 제설차가 없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 직접 손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환대는 인정이 넘쳤고, 그들은 가진 전부를 나누어 주었다. 앞으로 3개월 후면 식량이 떨어질 곳에서 생전 처음 이렇게 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다. 퍼스트 스텝스 사역의 중요성과 노력에 대해 그 곳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를 입증해준다.



매들린, 데보라, 대대리 협동농장 유치원 어린이들

# 데보라 하든의 일기



손수 뜬 모자와 목도리를 하고 포즈를 취한 원산고아원 어린이들과 데보라 하든

## 2월 22일 (화요일)

우리는 여러 곳에 나누어 줄 분유와 목도리를 담은 볼록한 가방들을 메고 평양에 도착했다. 조선-캐나다 협력 기구에서 저녁 초대를 해주어서 우리 모두가 그들이 베푸는 호의를 느낄 수 있었다.

## 2월 23일 (수요일)

우리를 태운 미니버스는 평양에서 서쪽 해안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남포로 갔다. 그 곳 사람들이 세계 식량계획(WFP)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필요한 약 700-800그램의 식량을 받지 못하고 고작 300-400그램의 식량 보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4월이면 그나마 비축된 식량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 늦여름에 일어난 홍수로 작물 수확이 없었던 데다가 겨울의 극심한 추위가 더해져 빚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 후, 우리는 대대리(Daedae) 협동 농장 유치원을 방문했다.

## 2월 25일 (금요일)

와우도구역에 있는 탁아 유치원 공급소에서는 참새요리가 포함된 특별 점심을 우리에게 정성스레 대접해 주었다. 그 곳의 소장은 1층 건물을 2층으로 확장해서 더 많은 콩우유를 생산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급식하기를 원한다.

## 2월 26일 (토요일)

통천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 공급소를 방문해, 나의 아버지를 기리며 후원한 바이타 카우가 작동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취약한 환경에서도 밝고 참을성이 많은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자상하고 관대했던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 2월 27일 (일요일)

우리는 탁아소와 고아원, 그리고 퍼스트 스텝스의 콩우유 생산 공장을 다니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원산 육아원 소장의 말

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열량 섭취량이 충족되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날들도 많다고 하였다. 우리는 분유가 절실히 필요한 세 쌍둥이 두 쌍과 또한 다른 신생아들을 만나 보았다. 다행히도 우리가 가져온 분유를 조금이나마 나눠줄 수 있어서 기뻐다. 우리는 퍼스트 스텝스 자원 봉사자들이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 모자와 장갑도 나눠주었는데, 이는 눈이 오고 추운 겨울 날씨에 온기가 거의 없는 건물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다.

원산 진료소에서는 2년전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에 도입한 미량복합영양소인 스프링클스로 인하여 폐렴을 앓는 환자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현재까지 임신부,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분배된 스프링클스는 500만 봉지 이상이다.

## 3월 1일 (화요일)

중국을 경유하여 밴쿠버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번 북한 방문이 두번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현실에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어려움을 용케 극복해 나가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확실히 하고 믿음이 가는 후원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 드리게 된다. 또한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 그리고 식료 공장의 직원들은 우리의 후원이 어린이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Kurtis Kooiker

## 커티스 코이커 와의 인터뷰

### 어떻게 북한을 찾게 되었나요?

알버타 레드 디어에 있는 우리 크로스로드(Crossroads) 교회가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원으로 퍼스트 스텝스가 그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함께 가서 보자는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마음씨는 내 마음을 흔들었고 북한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캐나다에서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을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이 1도, 2도, 3도 영양 실조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방문했을때 어린이들이 내 사진기에 찍힌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또 크게 웃는 어린이들을 안아주던 때가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소망은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 퍼스트 스텝스의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에서 사역하는 것은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나라 정부가 취하는 대외 정책에 따라 혹은 언론을 통해 보여진 북한의 모습으로 인해 북한을 돕는일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스트 스텝스는 그것을 넘어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이 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어린이들은 소중하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의 심각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퍼스트 스텝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이것이 CrossRoads 교회에서 퍼스트 스텝스를 돕는 이유입니다.



CrossRoads 교회에서 후원한 바이타 고트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커티스

### Yes, I want to help First Steps feed a child.

- I have enclosed my gift of \$100 to purchase a milk can
- Here's a special gift of \$\_\_\_\_\_ to help purchase a VitaCow (\$7000) or VitaGoat (\$3500)
- Here's a special gift of \$\_\_\_\_\_ to help purchase Sprinkles
- Here's a special gift of \$\_\_\_\_\_to help purchase soybeans (\$7.50/kg)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prov. \_\_\_\_\_ postal cod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cheques payable to First Steps and forward to: 3260 West 5th Ave. Vancouver, B.C. V6K 1V4 Canada  
BN: 87822 7511 RR0001. Gifts are acknowledged with an official receipt for Income tax purposes.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firststepscanada.org](http://www.firststepscanada.org) or call us at 604-732-0195.

